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및 성취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

김성수(金性秀)*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및 성취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이러한 관계 구조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다중집단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중고등학생 414명(남 269명, 여 146)에게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와, 성취목표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내재적 목표는 숙달접근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재적 목표는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적 목표를 매개로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목표는 숙달접근목표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외재적 목표가 수행접근목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논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생애목표, 성취목표, 부모의 자율성지지, 목표내용이론

I. 서론

인간의 욕구는 인간이 추구하는 포부(aspiration) 즉 생애목표(life goal)에 따라 만족되기도 하고 결핍되기도 한다(Ryan, Sheldon, Kasser, & Deci, 1996). 이는 학습자의 생애목표가 심리적 안녕감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업성취도는 높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 학습자들의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의미 있는 심리적 구인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생애목표(life goal)를 외재적 목표(돈, 인기, 이미지)와 내재적 목표(개인적 성장, 관계, 공동체의 기여) 2요인으로 분류되며, 외재적 목표와 내재적 목표로 각각 구분하는 기준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Kasser & Ryan, 1993; 1996).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외재적 목표와 강한 연관성이 있는 반면에,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내재적 목표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신중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신중호, 진성조, 조은별, 2013; Harris, Rice, Quinsey, Lalumiere, Boer, & Lang., 2003; Headey, 2008; Kasser & Ryan, 1993).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이하 SDT)은 생애목표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박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외재적 목표의 발달은 자율성과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의 박탈로부터 비롯되는 경향이 있으나 내재적 목표의 발달은 세 가지 욕구의 만족으로부터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Williams, Cox, Hedberg, & Deci, 2000). 이 역시 심리적 안녕감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외재적 목표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생애목표는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학업적인 맥락 안에서 학습전략과 학업성취, 그리고 성취목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생애목표를 통해 떨어진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긍정적인 학습 태도와 학습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학습자가 내재적/외재적 목표에 따라 학습에서 질적으로 다른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 처리와 학업성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Vansteenkiste, Simons, Lens, Sheldon, & Deci, 2004). Ryan 등(1996)은 외재적 목표가 강한 학생들의 경우 학업 조절에 부진(academic maladjustment)한 것으로, 내재적 목표가 강한 학생들은 적절한 학업 조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외재적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보고하였다. Wilding과 Andrews(2006)은 이타적인 생애목표 즉, 내재적 목표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반면에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 위치(외재적 목표)에 생애목표를 두는 경우, 깊이 있는 학습이 감소하고 표면적인 학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외재적 목표는 외적 학습동기와 가까운 수행목표와 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내재적 목표는 내적 학습동기와 가까운 숙달목표와 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Lepper et al., 2000; Rawsthorne & Elliot, 1999). Lee 등(2010)은 대표적인 외재적 목표에 해당되는 인기-지향적 목표와 부-지향적 목표는 숙달목표보다 수행목표와 더 높은 상관

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재적 목표에 해당되는 진로-지향적, 사회-지향적, 그리고 가족-지향적 생애목표는 수행목표보다 숙달목표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생애목표와 성취목표와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은 두 구인간의 내부적인 특성이 일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Kozlowski & Bell, 2006).

한편,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업적인 맥락에서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학업수행과 적응, 흥미, 동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한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Deci & Ryan, 2000; Grolinick & Ryan, 1989; Vallerand, Fortier, & Guay, 1997). 하지만 최근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사회 맥락 안에서 내재적/외재적 생애목표를 설명하고 있다(Vansteenkiste, Lens, & Deci, 2006). 냉소적(cold), 비일관적(inconsistent), 통제적(controlling)인 가정환경은 물질적 성공을 비롯한 외재적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Cohen & Cohen, 1996; Kasser & Ryan, 1996; Williams, Hedberg, & Deci, 2000). 부모의 이혼(Rindfleisch & Elliot, 1997),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Cohen & Cohen, 1996; Kasser, 2002), 국가적 경제 위기(Abramson & Inglehart, 1995) 등은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기타의 위험 요인들 역시 물질주의적인 외적 생애목표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내적 지향적인 생애목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중호, 진성조, 조은별, 2013). 이는 인간이 모델링 과정을 통해 그들의 문화로부터 현저하게 증가하는 목표를 받아들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Kasser, 2002), 결국 부모의 유능성 지지와 관계성 지지, 그리고 자율성 지지는 내재적 목표를 증가시키며, 반대로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기본심리욕구의 결핍으로 이어지고 내재적 목표의 감소로 나타난다(Schwartz, 2006).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관계성을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물질적인 성공과 비교하여 내재적 목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Williams, Cox, Hererg, & Deci, 2000). 이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업 동기와 태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생애목표와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는 두 구인간의 관계를 각각으로 수행하여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내재적/외적으로 구분되는 생애목표 및 성취목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성취목표의 성별 간 차이(Brdar, Rijavec & Loncarir, 2006)를 밝히고 있으므로 본 연구 모형을 통해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율성 지지와 생애목표와의 관계, 혹은 생애목표와 성취목표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역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애목표와 성취목표와의 관계만을 규명하고 있으며(문병상, 2011; 박분희, 김누리, 2012), 국외의 연구(Lee, McInernery, Liemc, & Ortega, 2010)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문병상, 2009; 문병상 2011; 신중호, 진성조, 조은별 2013). 또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 역시 국외에서 수행된 것으로 국내의 상황에서 수렴될 수 있는 연구모형인지

아직까지 검증이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애목표를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성취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통해 설명되는 생애목표가 성취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및 성취목표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성취목표와의 관계에서 생애목표가 매개효과로 역할을 하는가?
3.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및 성취목표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목표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미래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목표(goal), 열망(aspiration), 그리고 욕구(desire)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대개 미래목표 관점(FTP)이론에서는 미래목표(future goal)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SDT에서는 주로 생애목표(life goal)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DT의 다섯 번째 미니이론인 목표내용이론에 근거하여 내재적 목표(성장, 기여, 관계, 건강)와 외재적 목표(돈, 명예, 이미지)로 구분되는 인간의 미래 목표를 '생애목표'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생애목표의 연구에서 내재적/외재적 목표의 요인은 확대될 수 있으며,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에 따라 새로운 생애목표의 하위요인을 추가할 수 있다(Vansteenkiste, Niemiec, & Soners, 2010). 만약 이런 관련성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목표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익한지 또는 해로운지를 예언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애목표의 요인이 확대되고 추가되고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needs for autonomy), 유능성에 대한 욕구(needs for competence), 관계성에 대한 욕구(needs for relatedness)로 이 욕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특징으로 마치 생명이 자라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분과 같다(Ryan & Deci, 2002). 따라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지구조에서의 성장과 안녕감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이 욕구들은 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며 생득적인 구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능성은 White(1959)와 Harter(1983)의 효율동기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율성은 deCharms(1976)의 개인적 인과이론에서 거론된 것으로 인간의 행동의 근원이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조절자라고 믿으며, 자기에게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0). 관계성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타인에게 배려 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욕구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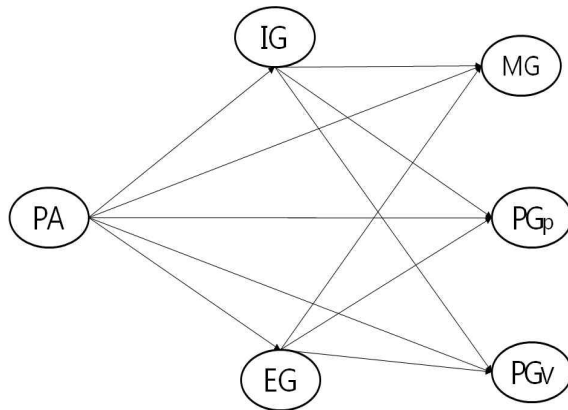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은 생애목표의 내재적/외재적 목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며,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에서 서로 다른 관련성을 맺는다고 설명한다. 이런 연구의 흐름에 따라 생애목표와 관련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심리욕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Vansteenkiste 등(2007)은 기본심리욕구가 직업과 관련된 결과물 혹은 일-가족의 갈등을 지향하는 외적 가치를 중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ebire, Standage와 Vansteenkiste(2009)는 기본심리욕구가 심리적 안녕감(well-being), 훈련 불안, 그리고 심리적 가치에서 내재적 목표의 관계성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hogersen-Ntoumani(2010) 등은 내재적 목표가 심리적 건강에 초점을 두는 기본심리욕구를 정적으로 예언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이상적으로 날씬해지기 위해 건강을 해치는 방법으로 몸무게를 관리하는 행동 계획(외재적 목표)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체적 외모 추구(외재적 목표)는 이상적으로 날씬함을 추구하는 것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외재적 목표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Niemiec, Ryan과 Deci(2009)는 내재적 목표의 변화와 심리적 안녕감과 변화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외재적 목표는 이런 기본심리욕구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경쟁과 물질적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 조직의 핵심적인 가치와 동일한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한다. Schwartz(2006)는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내적 가치(보편적 구제, 자기절제)보다 외적 가치(성취, 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에게 있어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지지가 내재적 목표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욕구를 좌절시키는 상황들은 외재적 목표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재적 목표 지향은 욕구 박탈과 관련된 짜증, 불안, 그리고 불안정과 대치되어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Kasser, Ryan, Zax와 Sameroff(1995)는 어머니가 자율성과 관계성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은 내재적 목표를 물질적인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Williams, Cox, Hedberg와 Deci(2000)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내재적 목표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생애목표와 성취목표와의 관계를 확인한 해외의 연구(Lee, Liem, & Ortega, 2010; Nicholls, Patashinick, & Nolen, 1985)를 보면 외재적 목표가 수행목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내재적 목표는 숙달목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내/외재적 목표와 성취목표, 그리고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를 규명한 국내 연구에서 외재적 목표(부, 권력)가 숙달접근목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문병상, 2011), 외재적 목표는 수행접근목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반분희, 김누리, 2012)에서도 내재적 목표가 숙달접근목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재적 목표는

수행접근과 수행회피목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숙달목표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 학업적 자기개념 및 학업노력과 생애목표와의 관계를 규명한 종단연구(신종호, 진성조, 2013)에서도 삶지향 목표(내재적 목표)는 학업적 자기개념과 학업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성취지향 목표(외재적 목표)는 학업적 자기개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내재/외재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성취목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 내재/외재적 목표는 성취목표와의 관계에서 생애목표가 성취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의 관계에서 생애목표와 성취목표로 각각 구분하여 산발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 모형을 설정하였다.



주) PA : 부모의 자율성 지지, IG : 내재적 목표, EG : 외재적 목표, MG : 숙달접근목표, PGp : 수행접근목표, PGv : 수행회피목표

[그림 1]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및 성취 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 가설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중학생 223명, 고등학생 191명, 총 4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한 학교의 수는 경기 지역의 8개교(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이다. 남녀의 비율은 남자 268명, 여자 146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학교 급 차이와 성별 차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학교 급 차이 및 성별 차이

구성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남자	121	147	268
여자	102	44	146
합계	223	191	414

2. 측정도구

1) 부모에 대한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ale; POPS)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노보혜(2011)가 번안한 Gronnick, Ryan와 Deci(1991)의 부모에 대한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ales; POP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하고 관여하는 정도에 대한 아이들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모 관여(mother involvement) 5문항, 모 자율성 지지(mother autonomy support) 6문항, 부 관여(father involvement) 5문항, 부 자율성 지지(mother autonomy support)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22문항 중 12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문항의 예를 보면,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해야 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신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한 결정에 따른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등이 포함된다.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3이다.

2) 생애목표 척도(life goal scale)

김성수와 윤미선(2013)이 개발한 생애목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SDT의 목표내용 이론을 근거해 개발되어 타당화한 것으로 8요인의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재적 목표는 물질, 명예, 이미지이고, 내재적 목표는 개인적 성장, 기여, 건강, 관계, 영성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으며(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7점 매우 중요함), 신뢰도(Cronbach’s α)는 성장, 명예, 기여, 이미지, 물질, 건강, 관계가 각각 .84, .88, .92, .83, .87, .86, .75 등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 .86으로 타나났다. 본 문항에서는 영성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보면, 물질의 경우,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갖는 것’, 명예의 경우, ‘연예인처럼 많은 인기를 얻는 것’, 이미지의 경우, ‘예쁘고 건강한 몸매를 갖는 것’, 기여의 경우, ‘시간을 내어 낙후된 곳

에 봉사활동 가는 것', 개인적 성장의 경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관계의 경우 '자녀들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건강의 경우, '아프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성취목표 척도(achievement goal scale)

성취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the brain and motivation research institute: *bMRI*)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성취목표 척도를 사용하였다(봉미미, 김성일 등, 2012). 본 척도는 숙달목표(mastery goal), 수행접근목표(performance-approach goal), 수행회피목표(performance-avoidance goal)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5문항 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달목표는 학생들이 내적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향상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접근목표는 학생들이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행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성취관련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행회피목표는 학생들이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수행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능력부족을 드러내는 일을 피하고자 성취관련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실력부족을 감추기 위해서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7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7, .87,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18.0를 활용하여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 목표, 그리고 성취목표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그리고 성취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χ^2 값과 함께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하게 평가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 모형의 간명성을 결합하여 측정된 *TLI*(tucker-lewis index),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제시하였다. *CFI*, *TLI*는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RMSEA*가 .05 이하 좋은 적합도, *RMSEA*가 .08이하면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 *RMSEA*가 .10이하

면 보통적합도, *RMSEA*가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의미한다. 경로계수를 통해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검증하였으며, Sobel(1982)이 제안한 *Z*검증을 통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로계수를 제약하는 측정동일성제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과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을 실시하였다. 남녀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고 기저모형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부모의 자율성 지지, 생애목표, 성취목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내재적 목표는 .347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외재적 목표는 .100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숙달목표는 .225로 유의한 정적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수행접근 목표와는 .155로 유의한 정적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수행회피목표와는 -.012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와는 .422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목표와 숙달목표, 수행접근, 및 수행회피와의 상관은 각각 .312, .255, .17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의 크기가 숙달 목표, 수행목표, 수행회피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외재적 목표와 성취목표와의 상관을 보면 숙달 목표가 .134로 가장 상관이 낮고, 수행접근이 .42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수행회피로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목표 간의 상관을 보면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간의 상관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와의 상관이 .512로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상관은 .231로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와의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측정변인들의 왜도, 첨도는 가설적 모형의 계수산출 방법으로 사용한 최대우도법의 기본가정으로 왜도가 2이하이거나 첨도가 7이하인 경우 정상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킬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2>를 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 내재적 목표, 외재적 목표,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및 수행회피목표의 왜도는 .045~1.217, 첨도는 .039~2.49로 이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PA이해	PA지지	PA선택	부모지지	성장	기여	관계	건강	내재적 목표	물질	명예	이미지	외재적 목표	속달목표	수행집근	수행회피
PA이해	1															
PA지지	.775**	1														
PA선택	.857**	.794**	1													
부모지지	.942**	.912**	.947**	1												
성장	.338**	.366**	.358**	.378**	1											
기여	.215**	.193**	.200**	.217**	.473**	1										
관계	.221**	.232**	.208**	.235**	.545**	.587**	1									
건강	.248**	.285**	.298**	.296**	.616**	.413**	.553**	1								
내재적목표	.347**	.304**	.320**	.347**	.709**	.794**	.756**	.687**	1							
물질	.075	.074	.061	.075	.277**	.216**	.383**	.421**	.341**	1						
명예	.092	.066	.076	.084	.217**	.266**	.343**	.278**	.374**	.538**	1					
이미지	.083	.081	.095	.092	.227**	.221**	.397**	.346**	.346**	.550**	.590**	1				
외재적목표	.100	.087	.092	.100	.284**	.281**	.443**	.409**	.422**	.815**	.863**	.842**	1			
속달목표	.203**	.189**	.237**	.225**	.282**	.289**	.161*	.221**	.312**	.153*	.167*	.009	.134*	1		
수행집근	.141**	.111**	.182**	.155**	.170**	.192**	.182**	.259**	.255**	.413**	.391**	.272**	.428**	.512**	1	
수행회피	-.025	-.070	-.012	-.037	.012	.176**	.063	.093	.171**	.226**	.277**	.155**	.264**	.231**	.579**	1
평균	19.94	19.50	20.85	60.28	29.84	19.63	22.85	23.52	109.07	21.47	18.02	20.03	59.52	20.29	19.69	16.82
표준편차	5.16	4.72	5.03	13.95	4.29	5.10	3.92	3.95	17.37	18.02	20.03	4.49	11.86	5.67	5.93	6.182
왜도	.357	.092	.720	.374	.633	.508	1.217	1.007	.380	.700	.345	.549	.526	.452	.331	.045
첨도	.352	.300	.453	.039	.384	.093	2.496	1.537	.489	.719	.065	.505	.605	.171	.171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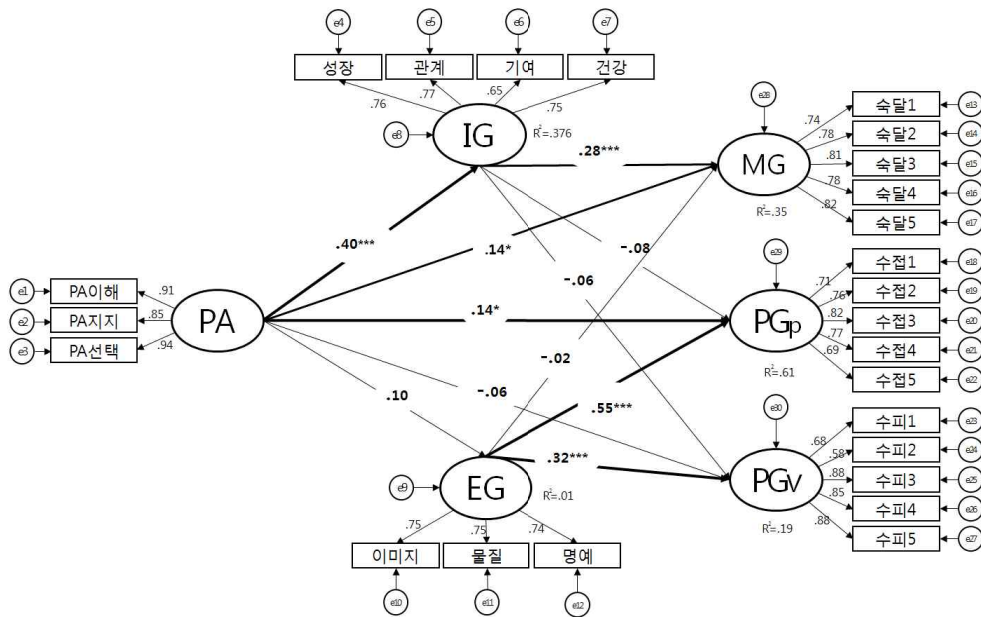
** $p < .01$, * $p < .05$

2.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χ^2 , *TLI*, *CFI*, *RMSEA* 값을 확인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χ^2	<i>df</i>	<i>TLI</i>	<i>CFI</i>	<i>RMSEA</i>
연구모형	554.852	249	.941	.951	.055 (0.48~061)



주) PA : 부모의 자율성 지지, IG : 내재적 목표, EG : 외재적 목표, MG : 숙달접근목표, PGp : 수행접근목표, PGv : 수행회피목표

[그림 1] 부모의 자율성지지, 생애목표 및 성취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

<표 3>에서처럼 χ^2 는 554.852(df=249)로 자료와 모형이 일치하다는 가설을 기각시켰으나 χ^2 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지수이므로 *TLI*와 *CFI*의 값을 살펴본 결과, *TLI*는 .941, *CFI*는 .951로 나타나 모두 이론적 지수 수준(.9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55로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로 설명되는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설명력은 각각 37%와 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 대해 외재적 목표보다 내재적 목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애목표에 대한 숙달접근목표, 수행접

근목표, 그리고 수행회피목표의 설명력은 각각 35%, 61%, 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목표가 숙달접근목표, 수달접근목표, 그리고 수행회피 목표 순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종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직접효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계수	p	
부모의 자율성 지지 →	내재적 목표	.403	.039	.282	.000**
	외재적 목표	.101	.041	.072	.079
	숙달접근목표	.132	.013	.028	.028*
	수행접근목표	.142	.013	.031	.015*
내재적 목표 →	수행회피목표	-.054	.025	.369	.369
	숙달접근목표	.293	.026	.090	.000**
	수행접근목표	-.109	.025	-.034	.178
외재적 목표 →	수행회피목표	-.022	.054	-.022	.404
	숙달접근목표	-.015	.023	-.004	.847
	수행접근목표	.581	.026	.179	.000**
	수행회피목표	.335	.025	.103	.000**

** $p < .01$, * $p < .05$

3. 부분매개효과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성취목표 사이에서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가 각각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 (Sobel, 1982)를 실시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잠재종속변인의 잠재독립변인에 대한 효과 분해

독립변인	종속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	내재적 목표	.403**	.403**	.118**
	숙달접근목표	.250**	.132*	.043**
	수행접근목표	.099**	.142*	-.008
	수행회피목표	-.062	-.054	
부모의 자율성 지지	외재적 목표	.101	.403**	-.001
	숙달접근목표	-.031*	.132*	.058*
	수행접근목표	.200**	.142*	.034*
	수행회피목표	-.020**	-.054	

** $p < .01$, * $p < .05$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숙달접근목표에 직접효과($\beta=.13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를 통해 숙달접근목표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beta=.11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수행접근목표로 가는 직접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내재적 목표를 통해 수행접근목표($\beta=-.043$)로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수행접근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058$)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Z검증의 경우, 임계치가 절대값 1.96이상이면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며, 2.58이상이면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본다.

검증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를 매개로 숙달접근목표에 미치는 영향($Z=7.61$, $p<.001$)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를 매개로 수행접근목표에 미치는 영향($Z=4.02$,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외재적 목표를 매개로 숙달접근목표에 미치는 영향($Z=2.44$, $p<.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별 조절효과 검토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남녀학생별 조절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전에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집단간 등가제약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집단 간 등가 제약모형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df$	p
형태동일성 비제약모형	946.822	498	.916	.930	.047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961.822	515	.919	.931	.046	15/17	>.05
집단간 등가 제약모형	1289.240	531	.838	.870	.062	327.418/16	.000

최종 연구 모형이 성별에 따라 같은 요인부하량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제약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결과, <표 6>와 같이 χ^2 는 961.822($df=515$)이고, TLI는 .919, CFI는 .931, RMSEA는 .046로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비제약모델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Delta\chi^2=15$, $\Delta df=17$)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집단에서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모든 경로계수에 대한 등가제약을 가하였다.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모든 경로를 동일하게 제약한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표 6>와 같이 $\Delta\chi^2$ 는

327.418이고, $\Delta df=16$ 로 $p<.001$ 에서 유의하여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모든 경로계수가 동일하게 설정한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녀 두 집단 간 경로계수 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녀 학생의 집단별 모수 추정치를 비교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남녀 학생 다중집단 경로분석

경로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부모의 자율성 지지	내재적 목표	.363	.259***	.507	.357***
	외재적 목표	.099	.065	.111	.091
	→ 숙달접근목표	.086	.015	.207	.044*
	수행접근목표	.117	.22	.171	.035
	수행회피목표	-.066	-.014	.013	.003
내적목표	→ 숙달접근목표	.163	.040	.447	.134*
	수행접근목표	-.182	-.048	-.074	-.022
	수행회피목표	-.121	-.037	-.109	-.038
외재적 목표	→ 숙달접근목표	.186	.049	-.190	-.049
	수행접근목표	.710	.202***	.442	.111***
	수행회피목표	.404	.131***	.299	.098*

*** $p<.001$, ** $p<.01$, * $p<.05$

<표 7>과 같이 남학생($\beta=.363$, $p<.001$)과 여학생($\beta=.507$, $p<.001$) 모두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숙달 접근목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남학생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학생집단($\beta=.207$, $p<.001$)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목표가 숙달접근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남학생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학생 집단($\beta=.447$, $p<.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목표가 수행접근목표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남학생($\beta=.710$, $p<.001$)과 여학생($\beta=.442$, $p<.001$) 모두에서 유의미했으며, 외재적 목표가 수행회피목표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역시 남학생($\beta=.404$, $p<.001$)과 여학생($\beta=.299$, $p<.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단 간 경로계수가 다른 부분 중 양쪽 집단 모두 혹은 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경로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 각각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하고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차이 비교

경로제약		χ^2	df	$\Delta\chi^2$	p
부모의 자율성 지지	→ 내재적 목표	1285.223	530	339.159	.000
	→ 숙달접근 목표	1285.325	530	339.261	.000
내재적 목표	→ 숙달접근 목표	1285.339	530	338.275	.000
외재적 목표	→ 수행접근 목표	1286.187	530	340.123	.000
	→ 수행회피 목표	1289.182	530	343.118	.000

<표 8>에서와 같이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서 내재적 목표로 가는 경로($\Delta\chi^2=339.159$)의 경우 남녀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서 숙달접근으로 가는 경로계수($\Delta\chi^2=339.261$) 역시 남녀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목표에서 숙달접근목표로 가는 경로계수($\Delta\chi^2=338.275$)는 남녀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목표에서 수행접근목표로 가는 경로계수($\Delta\chi^2=340.123$)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였으며, 수행회피로 가는 경로계수($\Delta\chi^2=343.118$) 역시 남녀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목표가 숙달목표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외재적 목표가 수행접근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경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내재적 목표, 외재적 목표, 숙달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 및 수행회피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와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남녀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이에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재적 목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통제적 맥락 안에서 내/외재적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Vansteenkiste, Simons, Lens, Sheldon, & Deci, 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유능성과 자율성 지지는 내재

적 목표를 증가시킨다(Schwartz, 2006)고 하였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외재적 목표보다 내재적 목표를 더욱 증가시킨다(Williams, Cox, Hererg, & Deci, 2000)고 보고하였다. 이런 사실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규명된 것이다. 내재적인 목표는 기본심리욕구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기본심리욕구는 부모의 자율성지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내재적인 목표가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적 만족 혹은 결핍이 부모의 양육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긍정적인 생애목표(개인적인 성장, 관계, 기여 등)를 설정하게 되며, 부모의 자율성을 지각하지 못할 때에는 욕구에 대한 대체제로 외재적 목표(돈, 명예, 외모 등)를 설정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 환경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생애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둘째, 내재적 목표가 숙달접근목표에 영향을 미치며, 외재적 목표는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동기의 대표적인 구인인 숙달목표가 내재적 목표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으며, 외재적 목표는 수행목표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외국의 선행연구(Lepper Henderlong, Carol, & Judith, 2000; Rawsthorne & Eillot, 199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외재적 목표가 수행목표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내재적 목표는 숙달목표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문병상, 2009; 문병상 2011; 박분희, 김누리, 2012; 신종호, 진성조, 조은별 2013)를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내재적 목표가 숙달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외재적 목표가 수행목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습장면에서 생애목표의 설정을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학습지도와 학습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수행회피목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학습 수행과 적응, 흥미, 동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Deci & Ryan, 2000; Grolnick & Ryan, 1989; Ryan, 1995; Vallerand, 1997).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내적 동기에 가까운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는 자율성 지지와 관련이 있지만, 외재적 동기에 가까운 수행회피목표는 자율성 지지와 관련성이 없음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습자의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결국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 따른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 학습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숙달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와의 관계에서 내재적 목표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목표와 숙달목표와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Kozlowski & Bell, 2006)에서 내재적 목표는 숙달목표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지만 외재적 목표는 수행목표에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차이를 드러내는 이유로 서로 연결되는 각각의 구인 간의

내부적인 특징이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생애목표와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Kasser, 2002)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외재적 목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거로 사람들은 모델링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문화로부터 현저하게 증가하는 목표를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생애목표, 그리고 성취목표와 관계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각 구인간의 종합적인 규명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생애목표, 그리고 성취목표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한 청소년이 내재적 목표의 증진을 통해 학습장면에서 숙달접근목표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숙달접근목표(김태은, 현주, 2007; 송인섭, 박성운, 2000)와 수행접근목표(문병상, 2009; 윤미선, 2007)가 내재적 목표를 통해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재적 목표의 증가를 통해 대표적인 학업 지표인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긍정적인 생애목표라고 할 수 있는 내재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발달한 내재적 목표는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다른 문화권과는 다른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들이 학업성취와 깊은 연관이 있는 성취목표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보다 긍정적인 내재적 목표보다는 물질적인 외재적 목표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저하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섯째,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생애목표 및 성취목표와의 관계에서 남녀학생에 따라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목표를 더 많이 증가시키며, 이렇게 증가된 내재적 목표는 수행목표와 비교해 숙달목표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외재적 목표가 수행접근목표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달접근목표와 수행접근목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지만, 수행회피목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Brdar, Rijavec & Loncarir, 2006)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비교해 내재적 목표가 숙달접근목표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는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비교해 외재적 목표가 수행접근목표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학생이 여학생과 비교해 외재적 목표에 따라 수행접근/회피목표에 더욱 민감하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과 비교해 내재적 목표에 따라 숙달목표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 따른 차이에서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부모로부터 더 자율성을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인이 생애목표와 성취목표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5개국을 대상으로 한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부모가 아들보다 딸에 대해서 더 지지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이는 실제적으로 양육태도에 있어 남녀학생에 대한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생애목표와 성취목표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육태도가 서로 달라야 함을 의미하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비교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의 양육태도가 더 필요하다.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의 수준을 높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윤미선, 2011; 윤미선, 김성일, 2003), 심리적 안녕감 또한 낮은 실정이다(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김현철,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생애목표의 신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성취목표의 향상이 생애목표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의 회복과 학업성취의 두 가지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가 높은 수준의 학습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생애목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개인적 성장, 사회적 기여, 관계 신장 및 건강을 포함하는 내재적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진로와 관련된 근원적인 지도와 상담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환경이 자녀의 생애목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냉소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통제지향적인 양육환경 속에서는 돈이나 인기, 외적인 이미지 등의 외재적 목표를 지향하게 되며, 그로 인해 낮은 수준의 학습동기와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자율성, 관계성, 그리고 유능성을 지각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통해 숙달목표지향의 내적 동기를 소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내재적 목표에 더 민감한 반면에 남학생은 여학생과 비교해 외재적 목표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수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의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학생의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비율

을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 중 자율성 지지만을 조사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도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성일, 윤미선, 소연희(2008).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14(15), 184-221.
- 김성수, 윤미선(2013). SDT의 목표내용이론에 기반한 청소년용 생애목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학연구**, 51(4), 87-118.
- 김태은, 현주(2007). 학교급별 학업능력에 대한 학습효능감, 학습동기화, 성취목표지향성 효과. **교육심리연구**, 21(1), 185-207.
- 노보혜(2010).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문병상(2011). 미래목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의 인과적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1), 45-67.
- 문병상(2009). 인식론적 신념,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22(4), 49-68.
- 박문희, 김누리(2012). 과학영재의 미래목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 **영재와 영재교육**, 11(1), 73-96.
- 봉미미, 김성일 등(2012). 성취목표척도. http://bmri.korea.ac.kr/file/board_data/assessment에서 2014. 1. 16일 인출.
- 송인섭, 박성운(2000). 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 **교육심리연구**, 14(2), 29-64.
- 신중호, 서은진, 이유경(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신중호, 진성조, 조은별(2013). 지각된 부모의 양육특성이 물질적, 사회적 목표를 매개로 학업자기개념 및 입시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단연구 학술대회**(pp. 529-555). 11월 27일. 서울: 서울대학교.
-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 통제적 양육행동: 5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31(2), 45-76.
- 윤미선(2007). 2요인 중다목표관점에 의한 성취목표지향성과 성별에 따른 중고생의 과학교과흥미. **교육방법연구**, 19(1), 1-19.
- 윤미선, 김성일(2003). 중, 고생의 교과흥미 구성요인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심리학연구**, 17(3), 271-290.
- 최인재, 김지영, 임희진, 김현철(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총**

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bramson, P. R., & Inglehart, R. (1995). *Value change in global perspective*.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rdar, I, Rijavec, M., & Loncaric, D. (2006). Goal orientations, coping with school failure and school achievemen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1*, 53-70.
- Cohen, P., & Cohen, J. (1996). *Life valu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ci, E. L., & Ryan, R. M. (2000b).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The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508-517.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Harris, G. T., Rice, M. E., Quinsey, V. L., Lalumiere, M. L., Boer, D., & Lang, C. (2003). A multi-site comparison of actuarial risk instruments for sex offenders. *Psychological Assessment, 15*, 413-425.
- Headey, B. W. (2008). Life goals matter to happiness: A revision of set-poi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 213-231.
- Kasser, T. (2002). Sketches for a self-determination theory of value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123-140).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10-42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280-287.
- Kasser, T., & Ryan, R. M., Zax, M., & Sameroff, A. J. (1995). The relations of matern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late adolescents’ materialistic and prosocial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07-914.
- Kozlowski, S. W., & Bell, B. S. (2006). Disentangling achievement orientation and goal setting: Effects on self-regulatory pro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 900-916.

- Lee, J. Q., McInerney, D. M., Liemc, G. A. D, & Ortiga, Y. P.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goal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perspectiv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4), 264-279.
- Lepper, M. R., Henderlong, J., Carol, S., & Judith, M. H. (2000). Turning “play” into “work” and “work” into “play”: 25 Years of research on intrinsic versus extrinsic motivation. In C. Sansone & J. Harackiewicz(Eds.),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pp. 257-307). San Diego: Academic Press.
- Niemiec, C. P., Ryan, R. M., & Deci, E. L. (2009). The path taken: Consequences of attaining intrinsic and extrinsic aspirations in post-college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291-306.
- Rawsthorne, L. J., & Elliot, A. J. (1999).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326-344.
- Ryan, R. M., Sheldon, K. M., Kasser, T.,& Deci, E. L. (1996). All goals are not created equal: An organismic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oals and their regulation. In P. M. Gollwitzer & J. A. Bargh(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pp.7-26). New York: Guilford.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 397-427.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chwartz, S. H. (2006). Cultural and individual value correlates of capitalism: A comparative analysis. *Psychological Inquiry, 18*, 52-57.
- Sebire, S. J., Standage, M., & Vansteenkiste, M. (2009). Exploring exercise goal content: Intrinsic vs. extrinsic exercise goals, exercise outcomes, and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1*, 189-210.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gersen-Ntoumani, C., Ntoumanis, N., & Nikitaras, N. (2010). Un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rs in adolescent girls: A process model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and Health, 25*, 535-550.
- Vallerand, R. J. (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pp. 271-360). New York: Academic Press.

- Vallerand, R. J., Fortier, M. S., & Guay, F. (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161-1176.
- Vansteenkiste, M., Lens, W., & Deci, E. L. (2005). Experiences of autonomy and control among learners: Vitalizing or immobiliz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 468-483.
- Vansteenkiste, M., Neyrinck, B., Niemiec, C. P., Soenens, B., De Witte, H., & A. Van den Broeck, (2007). On the relations among work value orientation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job outcomes: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0*, 251-277.
- Vansteenkiste, M., Niemiec, C. P., & Soenens, B. (2010). The development of the five mini-theorie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historical overview, emerging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T. C. Urdan, & S. A. Karabenlck(Ed.), *The Decade Ahead: Theoretic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and Achievement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Volume 16A*(pp. 105-165). London: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heldon, K. M., & Deci, E. L. (2004). Motivating learning, performance, and persistence. The synergistic effects of intrinsic goal contents and autonomy-supportive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246-6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CA.
- Wilding, J., & Andrews, B. (2006). Life goals, approaches to study and performance in an undergraduate cohor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71-82.
- Williams, G. C., Cox, E. M., Hedberg, V. A., & Deci, E. L. (2000). Extrinsic life goals and health 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756-1771.

* 논문접수 2014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4년 9월 10일 / 게재승인 2014년 9월 22일

* 김성수: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와 한국교육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며, 주 관심사는 학업동기, 청소년 문제행동, 학습 및 진로 컨설팅 등이다.

* E-mail: kims2@hanmail.net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s' Autonomy Support, Life Goal, and Achievement Goal

Kim, Sung Su*

This study attempted to stud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relations with perceived parents' autonomy support, life goal, and achievement goal and to review what differences does the relationship structure show according to genders, that is moderating effects among groups by multi-group analysis. As a result of research, first, perceived parents' autonomy support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trinsic goal. Second, intrinsic goal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astery-approach goal, and extrinsic goal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approach goal and performance-avoidance goal. Third, perceived parents' autonomy support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astery-approach goal and performance-approach goal. Fourth, perceived parents' autonomy support had indirect effects on mastery-approach goal and performance-approach goal through intrinsic goal. Fifth, i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gender, perceived parents' autonomy support in boy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intrinsic goal, and intrinsic goal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mastery-approach goal. In case of girl students, extrinsic goal decisive effect on performance-approach goal.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oretical implication was discussed and the limit of this study and the way next research goes were showed.

Key words: life goal, achievement, perceived parents' autonomy support, goal contents theory

* First author, adjunct instructor, Dankook University